

문 44.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것이 무엇인가?

답 44: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것은 하나님께서 주도 되시고 우리 하나님도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자도 되시는고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하겠다 하는 것이다.

신명기 11:1; 베드로전서 1:17-19; 고린도전서 6:20

추가질문 1: 십계명의 서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것은 무엇인가?

추가질문 2: 어느 부분이 하나님께서 주가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추가질문 3: 어느 부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추가질문 4: 어느 부분이 하나님께서 구속자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추가질문 5: 우리가 그의 계명을 마땅히 지켜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가질문 6: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만찬을 통해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이 있다. 그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분부하셨나요? (고전 11:24; 25)

설명:

십계명의 서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나열한다면 (1)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과, (2)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과, (3)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주가 된다는 것이며, (4)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 실행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 설명은 되풀이 되고 또 되풀이 되어야 할 만한 내용이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의 죄성에 있는 것이다. 사람의 죄성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도 그 뜻을 따르려하지 않는다. 유감스럽지만 이것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본능이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보고 자신의 입장에서 먼저 고려해 본다. 하나님의 법이 나의 생각과 논리와 경험과 철학에 비쳐볼 때 과연 지킬만한 법인가를 늘 따지는 것이 죄성이 있는 사람의 태도이다.

이 서문은 왜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가를 너무도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시며 여호와이신 절대자께서 그가 지은 피조물이며 그가 구속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적 의무이다. 우리의 이성애 맞고 안 맞고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라는 분과 그의 권위에 의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되는 것이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비난할 수 없다. 그의 위치는 절대자이시기 때문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대목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되심을 알 수 있다. 또 서문을 통해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낸 구속주 됨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신명기 11:1 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동기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사랑함으로 지키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위치와 권위로 인해 우리가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사랑함으로 그의 위치와 권위에 따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의 행사를 통해 그가 우리를 얼마나 지극히 대하셨던것을 깨닫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가 사랑함으로 출애굽하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사랑함으로 따르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출애굽기 20:20 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하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한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데 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서문은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능력과 이적을 이스라엘이 기억하도록 쓰여진 것이다.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 못한다면 그 아들은 아주 몹쓸자식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아주 몹쓸 백성인 것이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가 누구이시며, 그가 내린 은혜와 혜택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하는 방편이기도 하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만찬에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를 늘 마음에 두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십계명을 순종할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바치는 것이다.